

판화 다채로운 쓰임 · 가능성 만나다

전주 서학동사진미술관서 13일까지 ‘판화 쓰임새’ 개최… 21명 작가 참여 총 49점 작품 전시

오는 13일까지 전주 서학동사진미술관에서 ‘판화 쓰임새’ 전시 열린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전시는 서학동사진미술관 판화기획 ‘새김’ 전의 기획초대전으로, 21명의 작가가 참여해 총 49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목판화, 실크스크린, 드라이포인트, 젤판화, 수성목판화 등 다양한 판화기법을 통해 판화 예술의 넓은 스펙트럼을 감상할 수 있다. ‘판화 쓰임새’라는 전시 제목은 지난 1990년대 금암동에 위치했던 민촌아트센터에서 판화의 대중화와 작품 활용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선보였던 전시에서 가져왔다. 당시 전시는 판화에 관심 있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번 전시는 그 의미를 이어 오늘날 판화작가들의 다양한 역할

과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기획됐다. 특히 작업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작가들이 참여해 작업실마다의 특성을 볼 수 있어 더욱 주목된다. 김영란 작가의 판화실 유답재에는 오혜영, 이명자, 조진성 작가가 함께 드라이포인트, 소멸목판화, 풀라그라피 작업을 선보인다. 김수진 작가가 이끄는 광명 판화실에서는 박현진, 이은경, 장영애 작가가 함께 소멸목판기법을 통해 각자의 한국화, 서양화 작업을 새롭게 시도하며 작품을 완성했다. 프레스기 없이 손과 발로 직접 눌러 찍어낸 작품들은 판화의 원초적인 에너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또한 세대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요즘, 세대를

아우르는 예술활동으로 눈길을 끄는 공방도 있다. 꼬까신 판화공방은 최화영 작가의 판화실에 김성희 작가가 함께 참여해 최 작가의 아버님 삼남매를 지도하면서 시작된 특별한 공방이다. 한편, 문채원 작가가 이끄는 전북대 프로젝트 프린트는 대학 시절 판화수업 인연으로 모인 학생들과 함께 색다른 판화 형식들을 실험적으로 선보여 젊은 감각과 활기를 더한다. 서학동사진미술관은 “이번 전시가 판화가와 관람자 사이의 소통을 넓히고, 더 많은 이들이 판화의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학동사진미술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판화 작품들과 함께, 문화 향유의 소중한 시간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기차길에서 만나는 문장하나, 군산’

경암철길마을서 군산 담은 문장 쓰고 SNS 인증 필수 이벤트 진행

군산의 대표 레트로 관광명소인 경암철길마을에서 여름 휴가철을 겨냥한 특별한 이벤트 ‘기차길에서 만나는 문장하나, 군산’이 펼쳐진다. 20일까지 진행되는 행사는 군산 관련 도서의 글귀를 따라 쓰고 사회관계망(SNS)에 인증하는 필수 이벤트로 경암철길마을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체험과 추억을 남겨주고자 마련됐다. 시는 행사를 통해 기존의 상가가 많은 구간에서 벗어나 구암초등학교 방향의 옛 정취가 가득한 한가로운 철길 한가운데 있는 ‘기차길 책방’까지 관광객들의 동선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경암철길마을 내 ‘기차길 책방’은 독립서점과 연계된 공간으로 서점 한쪽에 군산의 역사·문화와 지역민의 이야기, 군산 여행 가이드북,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 및 군산의 모습을 기록한 도서 60여 권을 전시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책방에서 책을 자유롭게 펼쳐볼 수 있고 군산을 담은 문장을 찾아찍는 필사도 하면서 여행 속에서 문화적 향취를 느끼며 쉬어갈 수 있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군산과 관련된 책을 읽으며, 군산을 담은 문장을 쓰면서 군산만의 독특한 매력과 과거의 향수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 방법은 군산 도서의 글귀를 필사하는 인증샷을 포함한 경암철길마을 방문 인증샷 3컷을 필수 해시태그(#경암철길마을, #군산기차길책방 #문장하나군산, #군산도서큐레이션)와 함께 본인의 사회관계망(SNS)계정에 올린 뒤, 현장에 마련된 QR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후 추첨으로 200명을 선정하여 5,000원권 모바일 편의점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참여자 전원에게 10월 6일~9일 열리는 ‘2025 군산시간여행축제’에 사용할 수 있는 ‘모아모아 시간’ 1시간을 증정하는 특전을 제공한다. ‘모아모아 시간’은 시간을 모아 이벤트에 참여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의 대표행사이다. 방문객이 축제 기간에 축제장 내 특정 공간을 방문하여 QR 부호(코드)를 스캔해 시간을 모

경암철길마을 & 기차길 책방 인증샷 이벤트

문장하나, 군산

2025. 6. 27. 금 ~ 2025. 7. 20. 일

군산시 구암3.1로 116 <리투서점> 내부

200명 한정 모바일 편의점 쿠폰 증정

참여 방법 모아모아시간 1시간 증정 2025 군산시간여행축제에서 사용 가능 2025. 10. 6(일)~9(목) 15:00

리투서점

QR

이벤트 참여 방법

첫 번째 기차길 책방(리투서점) 방문 후, 방명록 or 도서 필사 인증 사진을 찍는다. 해당 주소: 군산시 구암3.1로 116

두 번째 필사 인증샷 포함 경암철길마을 방문 사진 3컷과 필수 해시태그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구암철길에 게시를 완료해 제출하면 참여 완료!

해시태그 #경암철길마을 #군산기차길책방 #문장하나군산 #군산도서큐레이션

문의 | 063.445.3750

군산의 대표 레트로 관광명소인 경암철길마을에서 여름 휴가철을 겨냥한 특별한 이벤트 ‘기차길에서 만나는 문장하나, 군산’이 펼쳐진다.

으면 기념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시는 경품을 통해 경암철길마을 방문객들이 군산시간여행축제 기간 내 재방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제7기 식물세밀화교실 운영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관장 박종영)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제7기 식물세밀화교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공간(自然共感)’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민과 함께 지역 자연자원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식물세밀화교실은 ‘전주천에서 만나는 식물들, 너의 푸르름이 하늘에 닿아’를 주제로, 전주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들을 관찰하고 이를 세밀화로 표현하는 과정

으로 구성된다. 강사 박숙경 씨의 지도로 오는 9월 3일까지 10주간 매주 진행된다. 박종영 자연사박물관장은 “전주천을 따라 흔히 지나쳤던 식물들의 생명력을 붓 끝에 담아내는 과정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완성된 작품들은 하반기에 열리는 세밀화 특별전에 출품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제주 예술로 잇는 ‘사이의 언어’

전주문화재단, 9일~8월 3일 12명 작가 110여점 작품 전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 2025 전주X제주 교류전 ‘사이의 언어’를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 ‘사이의 언어’는 전주와 제주라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자의 리듬과 방식으로 예술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들이 고유한 감각과 사유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전시다. 전주에서는 강현덕, 김미소, 장영애, 채소발, 최지영, 홍현철 등 6인이, 제주는 ‘예술공간 이야’의 레지던시 입주작가인 김현성, 나태주, 류동혁, 오미경, 이주, 전선영 등 6인이 참여한다. 총 12명의 예술가가 사진, 영상, 회화,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11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교류전은 그동안 각 지역에서 번갈아 전시를 이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12인의 작가가 한 공간에 모여 하나의 전시로 호흡을 맞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제주 전시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산하의 대표적 전시공간인 ‘산지천 갤러리’와 ‘예술공간 이야’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제주 전시 종료 후인 8월 7일부터는 전주 팔

복예술공간으로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전시 기간 중 참여 작가들이 각 지역의 환경과 문화, 예술 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영감의 순간을 공유하는 교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오랜 시간 매진해 온 두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소개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시가 단순한 지역 간 교류를 넘어 동시대 예술과 교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각기 다른 시선과 사유가 만나 완성된 전시는 경쾌하고 새로운 장면들로 가득한 예술 여행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두 지역 작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건네는 이야기에 많은 분이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관람은 무료로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원도심문화팀(064-800-9331) 또는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063-211-92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우진문화공간 갤러리, 한강 작가 개인전 개최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한강 작가의 개인전 ‘소화받지 못한 자들’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현대 사회가 설정한 ‘이상적인 몸’과 그에 도달하지 못한 몸의 경험을 통해 신체를 향한 통제와 기준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설치 작업으로 풀어낸다. 사회는 오랜 시간 이상적인 몸의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매뉴얼처럼 규정해왔으며, 100g의 닭가슴살, 식사를 대신한 커피 한 잔, 불규칙한 단식 같은 구체적인 수치와 루틴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몸을 조율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모든 몸이 그 기준을 같은 방식으로 소화할 수는 없으며, 어떤 몸은 거부하고, 어떤 몸은 불편함을 감추고, 어떤 감정은 삼켜지지 못한 채 흔적으로 남는다. 한강 작가는 이처럼 표준화된 기준이 만들어 낸 ‘소화받지 못한 몸’에 주목하며, 그 안에 감춰진 실재, 불편, 저항, 무력감 등의 감정을 조형 언어로 드러낸다. 전시의 중심이 되는 설치작업 ‘강개토대왕릉비’는 고대 비문 양식을 차용한 비석 형태의 조각 시리즈로, 전시 실재, 덕질, 채수, 무지, 정신적 공백 등 작가 개인의 경험을 비롯해 오늘날 젊은 예술가들이 겪는 성과주의, 불안정한 노동, 자기 PR 피로, 사회적 불안정성과 같

Han kang's solo exhibition

1. Regular meals should be avoided. 2. Water is good, but coffee is even better. 3. Occasional stress is necessary for a healthy stomach. 4. Traditional food is superior to foreign influences. 5. The best way to treat your stomach discomfort is by following these rules. 6. Maintaining your appetite only is to be stomach control. 7. Going to bed on an empty stomach is essential. 8. Regular fasting is the secret to detoxification. 9. Chewing and eating slowly are essential to enhance stomach flexibility. 10. If you follow these rules, your stomach will reach the peak condition.

소화받지 못한 자들

2025. Those who are not digested

원도심문화공간

은 현실을 담고 있다. 이 전시는 단순히 다이어트나 신체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준 자체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서 출발하며, 지금도 여전히 사회의 통제와 시선에 의해 소화받지 못한 채 남겨진 몸들의 존재를 조명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